

여성 사회참여 확대는 당면과제, '기회평등' 보다 '조건평등' 마련해야

세계화 추진위,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 방안' 대통령 보고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6월 12일 '여성역할과 지위의 세계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세계화 추진위는 21세기가 여성(Femal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이 중시되는 3F의 시대로 문화 지식산업의 발전이 여성의 자질 활용여부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남녀평등과 여성의 자아실현은 현실적 당위성과 절박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전제했다.

세계화 추진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65%에 비해 훨씬 낮은 47%. 특히

농촌 고령 여성의 농업 종사를 제외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25-34세 연령층 및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 낮다. 94년 현재 부족한 산업인력은 17만5천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만 올라도 17만명 인력공급을 초과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 현재 여성유휴 인력은 2백 70만명으로 이중 60만명만 취업하더라도 GNP 1-2%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또 현재 여성인력은 취업시에도 저생산성 부문에 집중돼

있다. 여성근로자의 67.2%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 및 기타 사회 활동 분야의 참여도 저조해서 국회의원의 2.0%(94년), 지방의회의원 0.9%(94년), 5급 이상 고급공무원 1.7%만이 여성뿐이다.

세계화 추진위는 이러한 여성의 저조한 사회참여율이 왜곡된 성비와 과도한 교육열, 중년여성의 자아상실 등의 사회문제와 연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수입의 대부분을 남성 1인의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40대 한국남성의 사망을

17.5%), 주부근로자에 대한 전직훈련 및 재훈련 기회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여성능력의 부족,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미흡 한 점 등이 지적됐다.

세계화 추진위는 ▶생애주기에 맞추어 사회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육아·가사·자녀교육 등의 과중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강구 ▶모성비용의 사회화 및 생활정치 참여의 기회확대 방안 마련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조건
의 평등을
최대한 지원
하여 사회참
여 활성화
▶ 여성의

육아·가사 사회분담책 강구 여성개발지수 공표 통해 주의 환기키로

이 높아지는 등의 남성문제와 직결되고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아 남성 1인에 의한 가구소득의 추가 증대는 한계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낙후된 요인은 전통적인 성차별주의 등의 국민의식과 수요의 22%에 그치는 육아·탁아시설 등 사회제도 미비, 8.2년에 불과한 평균교육연수(남성 10년), 취업교육부족(직업훈련 중 여성비율

평생교육체제의 마련 및 이러한 체제가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공공부분의 출선수범을 통해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녀차별을 시정 ▶여성개발지수의 마련과 공표를 통해 계속적인 점검 및 주의 환기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향을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8월까지 보고키로 했다.